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8월 6일(주일) 제1159호



목사 하용조 남겨진 이야기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 “영적인 친정아버지 같은 분”

하용조 목사 소천 6주기 추모예배를 지난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기념채플과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렸다.

하용조 기념채플에서 드린 추모예배에는 하용조 목사 가족과 지인, 당회운영위원, 목회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예배는 박종길 목사의 사회, 양재수 장로의 대표기도,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의 설교, 하용조 목사 가족 인사,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하용조 목사의 장남 하성석 형제는 “매년 추모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아버지가 생각날

때면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과 그 따뜻한 사랑을 떠올려 달라”고 부탁했다.

하용조 목사 기념관에서는 ‘목사 하용조 남겨진 이야기’ 영상이 상영됐다. 이 영상은 하용조 목사를 만난 성도들의 일화를 담고 있다.

저녁 7시 30분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추모예배를 드렸다. 하용조 목사 가족과 성도 1,600명이 참석했다. 이재훈 담임목사의 사회, 당회서기 이철 장로의 대표기도, 권준 목사 설교, 하용조 목사 가족 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설교한 권준 목사는 하용조 목사

를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기억했고, 윤영각 장로는 “창업정신과 기업정신을 오로지 교회와 복음에 쏟아서 오늘날의 온누리교회를 만드신 분”이라고 추억했다. 이민희 성도(이수공동체)는 하용조 목사님을 “영적인 친정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고백했다.

한편 두란노에서 하용조 목사의 메시지를 수록한 신간 <주님과 함께하는 나의 하루>를 발간했다. 1년 365일 동안 하용조 목사가 생전에 남긴 메시지를 볼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가격은 1만3천원.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하용조 목사님을 기리며



보고 싶습니다. 그 잔잔한 미소를.
남의 아픔 가슴에 안고, 남의 무거운 짐 등에 지고서도
어떻게 그렇게 웃으실 수 있었습니까.
새벽의 응달샘처럼 깨끗하고 맑은 그 입가의 미소를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강단에서 이야기하실 때나
찾잔을 앞에 놓고 단둘이 마주했을 때나
언제나 가슴 뛰게 하는 그 목소리를
한 번만이라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잡고 싶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손을 잡고 싶습니다.
투석하신 그 차가운 피인에도
잡고나면 묻어오는 따스한 체온.
그게 바로 모든 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신
그 사랑의 온도임을.
꼭 십년 전 내 머리 위에
성수를 뿌려주시던 바로 그 손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잡고 싶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나도 지금 당신께서 걸어가신
아픔의 길을 뒤따라갑니다.
한밤중 엠마오로 가던 길에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행복한 두 길손처럼.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들려오는 그 이야기를
한 번만이라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곧 가겠나이다.
주님께서 “그곳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신 빛의 하늘.
거기에는 보고 싶은 그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와 손을 흔드는
당신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 세상에 가셔도 똑같이 말하렵니다.
보고 싶었다고 그 미소를,
듣고 싶었다고 그 목소리를,
잡고 싶었다고 그 따스한 손을,
그리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고.



이여령 교수
(한중일비교문화연구소 이사장)

다음주(8월 9일) 신문은 여름휴가 관계로 휴간합니다.



목사 하용조 남겨진 이야기 - 내가 기억하는 목사님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하용조 목사를 만난 사람들의 기억이다. 하용조 목사가 천국에 간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하다.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에 가면 '목사 하용조 남겨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별 같이 빛났던 하용조 목사와의 꿈에도 잊지 못할 추억들이 알알이 박혀 있다. 알려지지 않은 하용조 목사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어떤 이는 하용조 목사를 비전을 제시해주고, 격의 없고, 소탈한 사람으로, 또 어떤 이는 전도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 정현주, 이소정 기자

복음과 그 따뜻한 사랑을



하성석 형제
(故 하용조 목사 장남)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새 6년이 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동안 온누리교회를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게 이끌어주신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인생을 표현할 때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그 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

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시 103:14-15)”라고 했습니다.

목회자 인생의 가치는 그가 생전에 무엇을 했고,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사람의 눈을 얼마나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묵묵히 걸어갔느냐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기억나시면 아버지를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가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과 그 따뜻한 사랑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짧았던 목회가 더 의미 있고, 하나님도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비전을 제시해주신 목사님



문봉주 목사
(동경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은 저에게 사역의 길과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를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평생 도사역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하용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목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

서 제가 신학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기도의 은사를 많이 사모했습니다. 그때도 하용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붙잡을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덕분에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도 모두 하용조 목사님 덕분입니다. 제가 일본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참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나는 일본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러브소나타를 할 테니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면 되겠네”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목사님이 너무 그림고 보고 싶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목사님



이남식 장로
(OCC공동체)

어느 날 하용조 목사님께서 제게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섬겨달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때만 해도 제가 총장을 할 정도로 연식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사했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비전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늘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비전을 세웠습

니다. 목사님이 주신 용기가 학교의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CCF(Christian CEO Forum)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사회의 리더들에게 많은 비전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의 클라팜 공동체처럼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소망하셨고, 그 소망이 CCF를 탄생시켰습니다. CCF가 러브소나타, CGNTV 등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지원하고 동역해나가는 비전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용조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은 영적 분별력도 대단하셨습니다. 어떤 것은 해야 하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저도 목사님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격의 없는 목사님



김영숙 선교사
(故 김사무엘 선교사 사모)

우리 하용조 목사님은 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그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분이셨습니다. 허물이 없고, 사람들을 너무나 편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하용조 목사님은 참 격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교회 로비에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습니다. 마침 목사님이 로비를 지나가시

다가 저를 보시고는 제 쪽으로 오셔서 제가 먹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넘죽 베어 무슨 것이 아니겠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은 남이 먹던 아이스크림도 아무렇지 않게 드실 정도로 격의 없는 분이셨습니다. 신분으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질 만큼 생각합니다.

“하용조 목사님 늘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소탈하셨던 목사님



이장로 장로
(여의도공동체)

하용조 목사님께서 제게 “교수라는 직함 자체가 엄격하니까 넥타이도 매지 말고, 평상복을 입고 다니면서 부드러운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보시기에 제 모습이 경직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기 편하고 친근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

다. 하용조 목사님께서 늘 소탈하게 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사랑과 열정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목사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과 유유했던 모습, 성도를 위한 섬김과 헌신, 선교에 목숨 건 목회, 투병 중에도 강단에서 죽고 싶다고 하셨던 설교에 대한 사랑을 여찌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하늘로 돌아갔지만 오늘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용조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림습니다.”

전도하는 목사님



윤형주 장로
(서초B공동체)

하용조 목사님은 전도에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연예인교회를 세우기도 전이었는데 연예인 전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연예인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방송국 로비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연예인이

지나가면 붙잡고 40분 혹은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자리에서 결신까지 시키셨습니다. 당시 방송국에 “전도에 미친 사람이나간 하용조 전도사를 조심해. 걸리면 예수 믿는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하용조 목사님을 피해 다니는 연예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피해 다녀도 로비에서 하용조 목사님께 붙잡힌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은 건강한 편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유언은 매우 정직합니다. 유언을 농담처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의 유언은 그 사람의 속마음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의 마지막 유언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독일 음악가 베토벤의 유언은 “천국에서는 들을 수 있겠지”입니다. 아마도 들을 수 없었던 장애가 그에게는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의새>를 남긴 문학가 오 헨리의 유언은 “불을 켜주세요. 어두울 때 집에 가기 싫습니다”이고,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의 유언은 “나는 창조주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창조주께서 나를 만나는 시련에 얼마나 준비되었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칼 마크스는 유언이 있는 나쁜 사람들의 질문에 “저리 나가주시오. 유언이란 살아서 충분히 말하지 못한 바보들이나 하는 거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의 유언들을 보면 대개 자신이 살아온 삶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듯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유언은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었고, 찰스 스펔전의 유언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입니다. 요한 웨슬리의 유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입니다. 나치 정권에 의해 사형당한 본 회퍼의 유언은 “이렇게 끝나지만 내 삶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모세의 유언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나오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오늘 본문이 모세의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29절은 모세 자신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핵심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 ‘축복’

모세는 40년 동안 지도자로 부름 받아 사역했습니다. 모세에게 죽음은 사명과도 같았습니다. 죽음까지도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사명으로 감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이었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쇠약해서 죽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몸이 건강할 때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과 함께 모세오경 토라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한 시대가 막을 내린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축복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유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치지도자이기보다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백성을 마음껏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비슷한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축복을 보면 야곱의 지파 순서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면서 시므온과 유다지파가 합쳐지면서 열한 지파만 축복했습니다. 야곱의 가계표를 따라 축복하는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비교하면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에는 아들들의 문제, 죄에 대한 심판이나 책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르우벤과 시, 레위의 악행들을 언급하고 심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축복을 보면 어떠한 잘못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축복의 언어만 사용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 서일까요. 아닙니다. 어쩌면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파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지극히 개인적인 역사의 견지에서 봤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가 없어서 지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으로 백성들을 대한 것입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도 전에 먼저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아들이 정진 차리고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회개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앞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은 우리가 돌이키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모세는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지만 야곱의 축복과는 달리 자손들에게 축복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후손들에게 남기시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하듯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결론은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핵심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는 행복하다’고 선언하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거쳐 40년 광야생활을 해왔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도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으면 고통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것이다.” 이 말씀은 눈물 없이 뿌린 씨는 기쁨도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멋지게 통과해서 그 고통이 행복의 일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행복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렸던 기간이 기쁨의 추수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흘렸던 눈물이 변해서 행복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즐겁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은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즐거움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란 즐거움만이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의미 있는 기쁨만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것 같다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경쟁심이 많고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아들에게 부유함을 자랑하고 싶었던 아바가 있었습니다. 그 아바가 자신의 일곱 살 난 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자신의 저택에서 차를 몰고 가난한 친구가 사는 작은 시골 농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무로 만든 작고 허름한 집에서 아들과 함께 잤습니다. TV도 없고 멋진 가구나 카펫도 없었습니다. 다른 전자기기가 없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밤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이틀 밤을 보내고 돌아온 부자 아바는 아들이 자신이 의도한 것을 깨달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골집에서 보낸 이틀이 어땠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정말 좋았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들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았니? 거기서 무엇을 배웠니?” “네 아빠.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집에는 네 마리나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수영장이 한 개 뿐인데 그 집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개울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이 있는데, 그 집에는 멋진 별이 있었어요. 우리는 밤에 제각각 TV를 보는데 그들은 모두 둘러 앉아 놀았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행복이란 환경이나 소유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행복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어떤 이와 함께 동행 하느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복의 원천 ‘두 가지 고백’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은 두 가지 고백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고백은 26절에 나옵니다.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려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26절).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의로 운 자’, ‘올곧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별명을 ‘여수론’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고 높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존재는 없습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을 고백과 찬양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을 찬양의 고백으로 바꾸어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련,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29절 초반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민족인 너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29절).

(13면에 계속)

■ 특집 미래를 내다보는 기독교

1.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2.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던져줄까?

3. 과학기술 발전과 기독교의 역할

적응하는 자 VS 못하는 자

양극화, 일자리, 사회 파편화, 기회 문제 발생



고건 장로
(이화여자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IT기술 발전이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던져줄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산업사회이고, 향후 사회는 정보사회다. 정보사회와 산업사회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겠다.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하나의 변화의 속도이다. 산업혁명은 100~200년에 걸쳐 서서히 사회를 변화시켰지만, 정보혁명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된다. 공장, 철도, 자동차 등의 기술이 전 세계로 보급되는데 걸린 시간과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이 보급되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해보면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확산속도뿐 아니라 기술발전 속도도 차이가 난다. 기차가 KTX처럼 빨라지는데 100년 이상 걸렸지만 컴퓨터는 18개월마다 2배씩 빨라져 왔다(Moore의 법칙). 이는 어마어마한 발전 속도이다. 컴퓨터의 능력이 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2배씩 성장해왔으니 21세기에 들어서서는 깜짝 놀랄 일들이 수없이 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

변화가 빨라지면 그 속도 자체가 문제를 야기시킨다. 적응하는 자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다. 양극화 문제가 심화된다. 개인 간 격차도 문제지만 지역 간 격차도 심화된다. 지역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 격차가 크다.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정보격차(Digital divide)’라고 부른다. 정부와 UN 등에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이 생기는 일자리

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따라 직업이 사라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 일자리가 사라지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버스 안 내양, 지게꾼, 굴뚝청소 등 수많은 일자리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사라졌지만 또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났다. 예를 들어 택배, 네일아트, 웹디자인과 같은 직업들이다.

신기술과 일자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리카도(David Ricardo)는 “기계가 노동력을 대체하며 노동자의 삶이 파멸해지고 있다”고 했지만 데이비드 오토 교수는 “기술과 일자리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밀(John Stuart Mill)은 “기술의 진보가 노동자들에게 일시적으로 해가 될지는 모르지만 기술진보에 따른 생산력 개선은 총체적으로 노동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제는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수다. 사라지는

일자리 수보다 새로 생기는 일자리 수가 많아야 한다.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람이 새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는지도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을 비교해보자. 산업혁명 때 사라지는 일자리는 대부분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었다. 단순 반복 노동이므로 재교육을 통해 새 일자리로 옮겨가는 것도 비교적 용이했다. 그러나 정보혁명시대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들은 회계사, 의사, 법관, 언론인 같은 고급 일자리들이 포함된다. 고급 일자리는 재훈련을 시키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정보시대에는 고급 일자리 종사자들의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그들의 대거 실업은 정치, 사회 체제에 심각한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평생교육 인프라가 중요해진다. 2012년부터 하버드, MIT,

교육으로 읽게 만든 덕분에 동질성이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산업시대의 기술들은 동질성 형성에 촉매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정보혁명은 거꾸로 파편화로 가게 할 염려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모든 국민이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부터 콘텐츠를 획일적으로 공급받았지만, 이제는 콘텐츠의 제작비용이 저렴해짐에 따라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홍수 시대가 된 것이다. 정보홍수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없게 된다. 자연히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정보만 골라서 소비하는 시대가 된다. 사람마다 다른 뉴스를 보고, 다른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다른 정보를 소비하게 된다. 또 정보가 너무 많다보니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엔진에 정보 검색을 의뢰하는 사람마다 맞춤 정보를 제공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단어를 검색엔진에 제시해도 검색을 요구한 사람의 나이, 성별, 직업, 전공, 종교 등에 따라 가장

동안 소프트웨어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IBM, 마이크로소프트, Oracle, 애플 같은 선진국 기업들이 요지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왜 그런가? 소프트웨어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적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나 라디오를 분해해보면 역공학으로 쉽게 따라갈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역공학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소프트웨어가 후발주자들에게 불리한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가 후발주자를 더욱 불리하게 만든다. 네트워크 효과란 많은 사람들이 채택할수록 더 많이 그 제품으로 몰리는 현상을 말한다. 스마트폰 문자 서비스를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톡을 선택한다. 이 같은 현상은 카카오톡이 가장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효과이다. 그럼 카카오톡보다 더 좋은 기능을 가진 제품이 나온다면 사람들이 그리 옮겨갈까? 소프트웨어의 경우 한 번 선택하면 웬만해선 안 바꾼다. 사용법을 다시 익혀야 하고, 데이터를 다시 세팅해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 때문에 관계 맺었던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바꾸는데 들어가는 시간, 노력, 비용을 전환비용이라고 한다. 소프트웨어는 전환비용이 높기 때문에 선발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하고 후발기업들은 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선발주자는 가격정책에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1·2차 산업혁명의 경우에는 경쟁에 이기기 위해 가격을 덤프하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IT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 1·2차 산업의 경우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쟁재(rival goods)들이지만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콘텐츠들은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제약이 가하지 않는 한 얼마든지 저렴하게 복제가 가능하다.

그 근본이 비경쟁재(non-rival goods)이다. 개발할 때에는 대규모 고정비용이 들지만 일단 개발이 끝난 후 배포할 때의 비용은 훨씬 저렴하다. 그러므로 경쟁자가 출현하면 가격을 덤프하여 후발기업의 진입을 쉽게 막을 수 있다. 경쟁자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가서 가격을 다시 올리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의 경우 선발주자가 독과점을 하는 것이 용이하다. 특정 기업이 독과점을 하게 되면 기술혁신을 더 이상 안 해도 되고, 가격을 더 이상 안 내려도 되며,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인센티브도 없어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손해를 입게 된다. 이처럼 정보산업에서는 선발주자가 너무 유리하므로 시장 자율에 맡기면 선발주자가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정보혁명으로 동질성은 사라지고 파편화된 사회가 될 수 있다.

스탠포드 대학 등은 강의를 인터넷 동영상상으로 올리고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MOOCs(Massively On-line Course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독교계도 온라인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척해야 한다. 특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은 매우 중요한 전도 수단이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주제 중에서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강의들을 많이 준비하면 믿지 않는 차세대 전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 파편화와 균등한 기회 제공

과거 과학기술은 사람들 간 동질성을 만들어 가는데 크게 기여했었다. 철도는 왕래를 원활하게 해줌으로써 국민들의 동질성 구축에 기여를 했다. 종이와 인쇄술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번역하고 배포하자 수많은 방인들이 하나의 표준어로 통일되었다. 성경을 인쇄, 보급하고 의무

적절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보성향에게는 더욱 진보적 정보를, 보수 성향에게는 더욱 보수적 정보를 주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동질성은 사라지고 파편화된 사회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균등한 기회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은 “정보혁명은 과거에 비해 보다 공평한 기회를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IT시대에서는 PC, 스마트폰, 인터넷만 있으면 누구나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비해 공평해진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선진국에게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다. 2차 산업의 경우 후발주자도 자동차, 조선 산업에 합류할 수 있었지만 3차 정보산업에서는 후발주자들이 불리했다. 실제로 자동차 산업은 포드→GM→도요타→현대 순으로, 가전의 경우는 RCA→소니→삼성→하이얼 순으로 후발 국가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똑같은 기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라’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첫 번째 선교캠프

두란노해외선교회(TIM;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첫 번째 선교캠프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라’를 개최한다. 오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동안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예배와 선교’를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선교캠프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함께 선교를 나누고, 마음껏 예배하는 축제다. 선교가 궁금하고,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선교캠프에 초대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형제에게 세례를 주고 있다.

“선교캠프는 예배와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는 부흥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도육환 본부장은 예배와 선교의 회복이 선교캠프를 개최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선교캠프는 한국 교회에 온누리교회의 선교를 공유하고, 선교사들에게 선교에 대한 동기를 다시 한 번 불어넣고, 성도들의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련됐

다.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 번째는 집회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선교사와 성도들이 함께 선교를 나누는 강의가 마련되어 있다. 선교라면 빠질 수 없는 유명 강사들을 초청했다. 두란노해외선교회 대표 이재훈 담임목사의 영상 메시지를 시작으로, OMF 인도네시아 선교사였고 KWMA 사무총장이었던 한정국 선교사가 ‘열방이 기쁘

하게 하라’를 주제로 강의한다. 한국 YWAM 대표를 역임하고 지금은 NCMN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건 목사는 ‘Be Nations-Changer’와 ‘갈렙의 정신’을 주제로 저녁 강의를 한다. 선교캠프 마지막 날에는 도육환 목사(두란노해외선교회 본부장)가 ‘TIM Beyond the 25th years’, 이재훈 선교사(현 Come Mission 국제 대표)가 ‘여전히 선교가 답이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두 번째는 TIM 미션토크쇼다. 인기리에 방송되었던 프로그램 ‘김제동의 토티유-걱정 말아요 그대’ 진행형식을 적용한 프로그램이다. 회중들에게 스케치북과 매직을 나눠주고, 제시한 주제에 대한 회중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나누는 형식으로 실시된다. 참석자들이 다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TIM 미션토크쇼의 주제는 ‘OO을 보내다’이다. 선교사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보내는 선교사라면 어떻게 보내는 선교사로 참여하고 있는지, 일반 성도라면 어떻게 하면 올 여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토

크가 이어질 예정이다. 토크쇼 중간에는 게스트로 초청된 선교사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도 가진다.

세 번째는 어울림 한마당이다. 일본, 중국, 몽골, 네팔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이다. Acts29비전빌리지 곳곳에 설치되는 나라별 부스를 방문하면서 그 나라의 민속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 각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선교사와 어울릴 수도 있다. 선교사와의 만남을 통해 선교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와 각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선교캠프 첫 날 오전에 순교자기념관과 하용조 목사기념관을 돌아볼 수 있다.

이제 신청만 하면 된다. 선교캠프 당일(8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참가신청은 두란노해외선교회 홈페이지(www.tim.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이다. 부분참석도 가능하다. 하루참석은 2만 원, 이틀참석은 4만 원이다. 저녁집회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문의: 070-4464-8118

두란노해외선교회(TIM; Tyrannus International Mission)란?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하용조 목사의 선교 정신에 의해 설립된 초교파 복음주의 선교단체다. 1987년부터 시작된 선교기도모임에서 태동되었다. 5년 동안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해오다 1992년 다섯 가정의 선교사를 허입하면서 두란노해외선교회가 창립됐다. 현재까지 1,146명의 장단기 선교사들이 두란노해외선교회를 거쳐 갔다. 현재 54개국 118개 지역에서 448명(장기 380명, 단기 68명)의 선교사가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다. 영혼 구원, 교회 개척, 제자양육을 핵심사역으로 삼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선교 방향을 공유하고, 훈련을 제공하고, 기도와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교사가 TIM에게

정말 큰 자랑거리



김성운 선교사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저는 10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훈련 받고 2012년 아프리카로 파송되었습니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면 두란노해외선교회에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먼저 파송되기 전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들었던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강의가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교가 막연했던 그 시절 나도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때 얻은 자신감은 선교지에 가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시작으로 교회 개척과 목회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란노해외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 개별적으로 선교지에 갔다면 불안한 마음에 사역을 쉽게 시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두란노해외선교회 덕분입니다. 또한 중보기도 지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올해 안식년을 맞아 한국본부에서 사역하면서 다시 한 번 기도의 힘을 깨닫고 있습니다. 기도로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큰 위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저에게 정말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만큼 지원해주고 선교체계가 잘 갖춰진 단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진짜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경곤 선교사
(네팔)

저에게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선교사가 되기까지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네팔 아우리치를 시작으로 단기선교사가 되었고, 네팔인 아내와 결혼하면서 네팔사역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 5년 동안 온누리M센터와 서빙고 온누리교회 네팔예배를 섬긴 것은 네팔에서 선교하는데 큰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0년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네팔 장기선교사로 파송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저의 가장 좋은 동역자이자 조력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가장 좋은 동역자이자 조력자

현지에서 사역하기 위해 센터를 건축할 때가 기억납니다. 초기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두란노해외선교회에서 저를 믿고 센터를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한 층으로 시작한 센터가 지금은 3층 센터가 되었고, 성인 성도만 1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도 만나는데 파송만 멋지게 하고 관리나 기도 후원을 하지 않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두란노해외선교회가 얼마나 선교사들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와 물질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지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들이 더 성장하고,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신경써주시는 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낌없는 후원에 힘입어 청년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일에 힘쓰려 합니다. 매년 FA청년들이 네팔 꼬혈 뿔을 찾아오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People

내가 만난 하나님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인생이 180도 바뀐 이주민 노동자가 있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해리 형제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한국에서 10년 동안 일했다. 낯선 나라에서 이주민 노동자로 살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예수 만난 감격과 감동을 고국에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할 만큼 신앙도 성숙했다. 그 과정이 정말 은혜롭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해리 형제는 1년 전 인도로 돌아가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출국이 미뤄졌다. 다친 다리를 치료하는 동안 미뤄왔던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았는데 바로 그 양육이 해리 형제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그는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만 한다. 틈만 나면 고향땅에 교회 세울 고민을 하고 있다. 예수에 꼭 빠진 해리 형제를 보고 친구들도 예수님을 만나겠다며 교회에 나오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주민 노동자에서 선교사가 되기까지

10년 만에 복음 들고 고국으로 파송되는 해리 형제



▲ 왼쪽부터 윤정노 목사, 해리 형제, 갈라 형제.



▲ 일대일 수료예배에서 간증하는 해리 형제.

어눌한 한국어, 절뚝거리는 다리, 한마디가 잘려나간 중지 손가락, 아들을 유학 보낼 수 있는 돈... 해리 형제가 10년 동안의 한국 생활에서 얻은 것들이다. 어딘가 애처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한국 생활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는 올해 12월 고향 인도로 돌아갈 예정이다. 한국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벌써부터 온 몸이 들쭉거리고 있다.

눈물 마를 날 없던 그에게 찾아온 행복

해리 형제가 한국에 온 것은 2006년이다. 아버지가 오랜 시간 암 투병을 하면서 집안 경제 사정이 말이 아니었다. 생계를 위해 한국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한국에서 자리 잡은 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였다. 농장에 취업해서 돈을 벌었다. 그런데 노동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는지 모른다. 하루 15시간씩 일했다. 주말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육 먹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매일 울면서 잠들었어요.”

눈물 마를 날이 없던 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친구가 찾아왔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온누리미션팀이었다. 온누리미션팀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인근 비닐하우스와 공장을 다니면서 이주민 노동자들을 전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해리 형제가 일하는 비닐하우스에도 방문을 했다.

그렇게 난생 처음 교회에 갔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에서 이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답답했던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막혔던 일들도 술술 풀렸다. 월급을 못 받으면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대신 싸워줬고, 조금이라도 아프면 자기 일처럼 걱정하면서 병원에 데리고 다녔다. 좋은 병원과 의사를 수소문해서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평생을 힌두교인으로 살아온 해리 형제였지만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수 믿을 사람 VS 예수만 믿을 사람

해리 형제는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에 감동 받고, 고향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가 즐거워서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양주 온누리교회 인도예배에서 없어서 안 될 구성원으로 성장했다. 그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인도예배에서 ‘섬김 대장’, ‘전도 대장’으로 통한다. 병원에 입원한 고향 사람이 있으면 잊지 않고 심방을 가서 기도해주고 성경책을 선물로 건네주고 온다.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 하는 고향 사람에게는 손바닥만 한 자신의 방에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머물게 해줬다. 절대 해리 형제의 삶이 그들보다 나아져 도운 것이 아니다. 그는 여전히 농장 컨테이너 단칸방에서 살고 있고,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아직도 허다해서 일 년에 한 번씩은 직장을 옮기고 있다. 그 와중에도 인도 사람들을 섬기고 있다. 예수님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설교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그 말씀처럼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분들처럼 인도와 네팔에서 온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싶어졌어요.”

해리 형제의 섬김 덕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온 이주민이 한 둘이 아니다. 얼마 전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고 고백한 뱀미 형

제도 그중 한 명이다. 인도인들에게 “예수를 믿겠다”는 표현과 “예수만 믿겠다”는 표현은 차원이 다른 고백이다. 인도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수많은 신 중에서 한 명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 손 들어봐”라고 물으면 많은 인도인들이 손을 든다. 그러나 “예수만 믿을 사람 손 들어봐”라고 하면 손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뱀미 형제는 해리 형제의 집에서 두 달 동안 머물면서 “오직 예수만 믿겠다”고 고백했다. 해리 형제의 삶이 뱀미 형제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다. 갈라 형제도 “나도 좀 변하고 싶다”면서 해리 형제를 쫓아다니고 있다. 갈라 형제는 토요일에는 인도와 네팔예배를 드리고, 해리 형제가 간다면 주일예배까지 따라나오고 있다.

“다들 한국 생활을 힘들어하는데 유독 해리 형제만 밝고, 빛나고, 이웃들을 돕는 여유가 있어요.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해요.”

해리 형제는 그 비결로 일대일 제자양육을 꼽았다. 본인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몰라보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말에 인도로 돌아가려고 했다. 지난해 1월 공장에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이었다. 10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본 가족들도 너무 그리웠다. 그런데 갑자기 양쪽 무릎을 다치면서 출국을 1년 미뤘다. 그 시간 동안 다친 다리를 치료 받으면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았다.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윤정노 목사가 힌디어로 만든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를 활용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같이 사는 형제들 밥 차려주고, 성경책을 펼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양쪽 다리 무릎 관절수술을 한

뒤라서 앉았다 일어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QT하고 출근했어요.”

그렇게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달 6일 수료예배를 드렸다. 그 자리에서 간증도 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제 인생에서 받은 가장 값비싼 선물이었고, 하늘의 보물 중에서도 가장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해리 형제가 일대일 제자양육을 마치고 나서 남양주 온누리교회 인도예배와 네팔예배에서는 일대일 제자양육 붐이 일고 있다. 네팔에서 온 락심 자매도 정인숙 권사에게 양육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네팔인 자매들이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고 싶다고 아우성이다. 해리 형제가 만난 예수님 그들도 만나고 싶기 때문이다.

십자가 하나 없는 고향에 교회 세우는 꿈

해리 형제의 소원은 하루라도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고향에 돌아가면 교회부터 세우는 것이 목표다. 해리 형제의 고향은 인구 1만5천명이 생활하고 있는 인도 이스마 일라바드다.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고향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십자가를 볼 수 없다. 교회를 찾으려면 50km는 가야 할 정도로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다. 해리 형제는 우선 가족들을 전도하고 있다. 전화로 아내와 자녀들을 전도 중인데 아내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회 하나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부담 되고, 출국할 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제자양육, 찬양, 가정예배를 드리는 법 등을 배워야 하지만 그의 얼굴은 밝기만 하다. 얼마 전 기분 좋은 꿈을 꿔기 때문이다.

“꿈속에서 저희 집에서 8km거리에 있는 곳에 성경공부 포스터가 붙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왼쪽에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멀리서 두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절벽 옆을 가면서 ‘이쪽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들을 따라가 보니까 교회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위해 요리를 하다가 꿈에서 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해리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리 형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해리 형제의 고향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말이다.

최정주 권사의 말씀이 들리는 ‘예술 산책’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그림은 중세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화가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서 익히 보아 왔다. 하지만 그것들과는 정반대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묘사한 작품이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신 것은’이라는 이 그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반대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을 그렸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주제인 셈이다.

제임스 티소는 1885년 그의 나이 49세 때부터 종교색이 강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일생을 다룬 작품만 350점이 넘게 그렸다. 직접 성지 순례를 다니며 철저히 성경에 입각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그는 가장 사실적이고 성경적인 감동을 주는 화가로 오늘날까지 기억된다. 이 작품에서 티소는 예수님의 눈에 내려다보이는 사람들 즉, 슬피 우는 여인들, 예수님을 인정한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제사장들, 누가 십자가에 매달렸든 관심도 없는 군인들 등 다양각색의 사람들을 담아냈다. 죄를 짓고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원망의 눈이 아니라 안쓰럽게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전해진다. 죄 많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자 하신 예수님의 시선이 느껴진다.

재미있는 점이 발견된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작품에 예수님의 모습도 일부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 아래 엎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내려다볼 때 그 시선 끝에 걸린 예수님 자신의 발이 마리아의 얼굴과 함께 그림 가운데 아래편에 표현되어 있다.

바로크의 대표적인 작곡가 바흐의 칸타타

147번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합창곡 ‘예수는 인간의 소망과 기쁨 되시니’가 들어 있다. 이 곡을 통해 바흐가 표현하려고 한 것은 바로 ‘인간의 소망’이다. 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셋잇단음표의 선율로 이 곡을 시작한다.



제임스 티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신 것은' (1886~1894년 경, 뉴욕브루클린뮤지엄).

이어서 긴 선율의 유려한 합창이 부드럽게 흐르며 두 개의 선율이 아름답게 어우러진다.

제임스 티소의 그림을 감상하면서 바흐의 칸타타를 들으면 어떻게? 그림 속에는 수많은 이의 얼굴이 담겨 있다. 그 얼굴에는 제각기 다양한 표정과 감정이 숨어 있다. 예수님은 그 얼굴

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며 모든 이의 마음을 일일이 들여다보신다. 마치 바흐의 칸타타에 흐르는 셋잇단음표의 계속되는 움직임처럼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하나하나 어루만지신다. 이 정성스럽고 단정한 선율은 곧이어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 모여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림을 보는 우리도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작품은 정반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군중에게로 또 나에게로 시선을 향하게 한다. 나는 여인의 모습으로, 백부장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군인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서 있다. 놀라운 것은 죽어가는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 모인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고통 받는 자신이 아닌 무지하고 두려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따뜻하게 다가온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나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나지막이 말씀하시는 듯하다.

이 그림을 보면서 내 시선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꾸어 본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 친구, 이웃, 교회 지체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내려다본다. 주님이 가지신 따뜻한 시선으로, 주님이 가지신 긍휼한 마음으로, 영화의 한 장면이 슬로우 비디오로 흐르듯 내 주위를 돌아본다. 단순히 시선과 마음가짐을 예수님의 그것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따뜻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온다. 경쟁적, 공격적, 적대적인 갈등과 대립의 심리가 아니라 형제자매 사이 같은 사랑이, 물질과 마음을 나누어야 할 근린의 사랑이, 주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가는 동반

자로서의 마음이 샘솟는다. 내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시는 예수님의 긍휼한 심정으로 오늘 아침을 시작한다.



최정주 권사(한국예술융합교육학회 회장)

차세대에게 들려주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너무나도 무더운 계절 여름(혹서, 酷暑). 무더위를 정면으로 맞서든 혹은 피하려고(피서, 避暑) 사람들은 각종 공포물로 몰려가고 있어요. 공포물은 대체로 자신이 속해있는 문화권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죽음이나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처녀귀신, 구미호, 도깨비,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영미권의 부기맨(Boogeyman; 모습이 일정한 형태가 없는 유령 같은 존재로 벽장에 들어가면 나타남), 종화권의 강시, 부두교 문화권의 좀비(Zombie; 부활한 시체라는 뜻) 등 정말 수많은 공포물이 있어요.

5인조 보이그룹 사이미의 히트곡 ‘루시퍼’의 가사는 연인에 대한 잘못된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을 빙자해서 연인에게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는 모습이 흡사 천사와 악마의 두 얼굴을 가진 듯한 ‘루시퍼’ 같다는 내용이지요. 이런 대중가요나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루시퍼를 타락한 천사, 사탄의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타난 횟수가 110번, ‘사탄’이라는 단어는 50번, ‘마귀’라는 단어는 44번 나타났어요. 그렇다

면 ‘루시퍼’란 말은 몇 번 나올까요? 놀랍게도 한 번도 없어요. 한글 성경, 영어나 히브리어, 헬리어 성경에도 루시퍼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아요. 루시퍼라는 말은 라틴어 ‘루키페르’를 영어식으로 읽은 것이예요. 초대교회 이후 로마교회의 중요성이 커져갈 무렵 루시퍼라는 단어가 라틴어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셋별(Lucifer)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사 14:12).

루시퍼의 어원은 빛이라는 뜻의 ‘lux’와 가져 오다는 뜻의 ‘ferre’의 합성어로,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예요. 즉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 아니라 셋별, 금성(金星), 계명성, 새벽별(morning star) 정도로 번역되는 아주 평범한 단어예요. 이 평범한 단어 루시퍼가 사람들에게 사탄의 이름으로 인식된 것은 절대적으로 유다서 6절 말씀과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이에요.

“또한 자기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원한 사슬에 묶어 어둠 속에 가두셨습시다”(유 6절).

유다서에 나타난 사탄에 대한 언급과 이사

야서에서 나타난 셋별(계명성)에 대한 유사성을 오해한 것이예요. “웬일이냐, 새벽의 아들 셋별아. 네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무찌르던 네가 땅에 처박히다니! 너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었지.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내 보좌를 높이 세우겠다...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사 14:12~14).

이사야서 14장 내용은 모든 영화를 누리던 바벨론 왕의 교만으로 하나님께 반겨 될 형벌을 묘사하고 있어요. 다른 선지서에서도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방 왕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었을 뿐이예요. 그런데 초대 교부들(제롬, 터툴리안, 오리겐)이 셋별을 사탄이라고 주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영국의 시인 밀턴도 <실낙원>에서 셋별을 사탄으로 지칭했어요. 그렇게 후대 사람들에게 고착되면서 결국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인 것처럼 알려지게 된 것이예요.

그러나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칼빈 성경주석> 445쪽에서 “이는 무식의 소치다. 앞뒤 문맥을 따를 때 이 구절은 어디로 보나 바벨론 왕과 관련된 언급임이 명백하다. 성경 구절을 대수롭지 않게 읽거나 문맥에 무

관심하다보면 그런 실수를 흔히 범한다”고 말했어요. 초대 교부 몇 명의 근거 없는 해석 때문에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버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된 거죠.

성경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셋별(새벽별, 계명성)이라고 분명히 지칭하고 있는데 말이에요(계 22:16). 우리가 성경을 문맥 안에서 정확하게 읽고, 그 내용에 대해 잘 숙고한다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마다 더욱 겸손하게 진리의 성령님께 조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해요. 한 여름 잠 못 이루는 열대야와 싸워보겠다고 공포물 앞에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폭포수와 같은 주의 말씀 앞에서 시원한 성령 샤워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진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니까요(엡 6:12).



곽상학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여호수아공동체 스리랑카



김보라 성도
(여호수아공동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렘 4:4). 우리 팀의 이름은 ‘리조이스(Rejoice) 스리랑카’다. 이름 그대로 이번 스리랑카 아웃리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다. 역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는 완전히 달랐다. 한 팀원은 감기에 걸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 아주 조금 돌아온 목소리로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쁨이었고, 다른 한 팀원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막상 그곳에서 아이들을 안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진 것이 기쁨이었다. 또 다른 팀원은 아이들을 통해 어린 시절 상처를 다시 마주하고 용기 내어 그 상처를 팀원들에게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기쁨이었다. 우리 팀은 이러한 크고 작은 기쁨이 가득한 8박 9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면서 화요성령집회에 참석했을 때였다. 스리랑카에서 만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 팀이 만나는 아이 단 한 명이라도 변화시켜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나는 너희 팀이 만날 모든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 순간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받았다. 나의 작은 믿음을 눈물로 회개했다.

우리 팀은 워싱, 인형극, 미니올림픽 등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아이들을 한 명 한 명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다.

스리랑카에 도착한 첫날 한 아이를 무작정 품에 안았다. 그날 처음 만난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상처받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옆에 계시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렀고 그 아이를 더욱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기도를 끝내고 눈을 떴는데 내 주위에 아이들이 줄을 서 있었다. 모두 하나 같이 “나도 안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다. 하루는 아이를 안고 “이 아이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하루는 힌두교인 아이를 품고 “나는 부족해서 주님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아이의 꿈이라도 나타내셔서 알려 달라”고 부르짖었다. 간증을 쓰고 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리라고 확신한다.

현지 아이들이 가난하고 불쌍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곳에서 느낀 것은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나도 사랑하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마을 어린이 200명과 함께 '동글게~' 게임을 하고 있다.

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 따뜻한 사람이 이번 스리랑카 아웃리치에서 내가 느낀 가장 큰 기쁨이었다.

스리랑카 아웃리치를 다녀온 지 열흘이 지났을 때였다. 그 열흘 동안 내가 스리랑카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 너무 쉽게 잊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득 아웃리치 마지막 날 박영근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한국으로 파송한다고 말씀 하셨던 것이 기억났다. 선교사의 마음으로 한국에 돌아왔는데 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기도제목에는 나만 가득하고, 그 땅의 아이들이

기억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이제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렘 4:4)는 말씀처럼 주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으면서 살아가려고 한다. 이번 스리랑카 아웃리치 팀원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을 다시 밟을 때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기도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연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스리랑카 현지 목사님들께 이 찬양을 불렀다. 우리 팀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찬양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부천 드림플러스 동아시아B국



조은유 자매
(부천 드림플러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9).

부천 드림플러스 동아시아B국 아웃리치팀이 이번 여정에서 붙들고 나아갔던 말씀이다. 나에게 있어서 이번 아웃리치의 가장 큰 미션은 ‘삶’이었다. 어머니로부터 등 떠밀려 경험했고, 이벤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만 반짝하고 그 이후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아웃리치가 아니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웃리치가 삶이 되어야 한다는 무거운 주제를 던져주셨기 때문이다.

나는 출산휴가를 간 직원을 대체하는 말단 계약직 사원이라 휴가 쓰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래서 아웃리치 팀장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함께하지 못했다. 일정을 전부 함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조급함이 있었다. 팀원들의 안전과 건강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

그렇다고 나의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

해하고 싶지 않았다. 왕 같은 제사장은 무엇인가 점잖아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저 먼저 그 땅을 밟고 있는 팀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감사하게도 내가 없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팀 가운데 크게 임하셨고, 나눔을 통해 그 은혜들은 느끼게 해주셨다.

동아시아B국 아웃리치는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돌아오는 것만이 전부 아니었다. 데리고 오는 아웃리치였다. 동아시아B국에서 만난 선교사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로 연결해주셨는데 그 대학생들이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기 때문이다.

동아시아B국에서 만난 대학생 친구들에게 입 밖으로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과 교제하고 친해지는 시간이 내 유익과 만족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동아시아B국은 기온이 40도가 넘으면 직장인이든지 학생이든지 반드시 낮잠을 잔다고 한다. 그런데 40도가 넘는 땀벌에서도 동아시아B국 친구들이 자기 생활을 버리고 우리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었다. 그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웃리치팀을 위한 배려였던 것이 떠오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나?”라는 질문이 마음에 남아있다.

내 삶의 아웃리치는 끝나지 않았다



동아시아B국 대학생들과 함께한 즐거운 시간.

선교가 삶이 된다는 것은 선교사님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동아시아B국 아웃리치를 통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특별한 사역을 하지 않아도 선교가 된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다. 동아시아B국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내 삶의 아웃리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동아시아B국 아이들을 만날 때 빛을 비취주세요.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해 동아시아B국이 복음을 알고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브릿지33+공동체 일본



최문희 권사
(브릿지33+공동체 멘토)

나는 남편과 함께 브릿지33+공동체 멘토로 섬기고 있다. 우리 부부는 이번 브릿지33+공동체 일본 아웃리치팀과 함께 동경 러브소나타에 참석했다.

일본 아웃리치와 러브소나타 동경 참석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기도로 준비했다. 일본 아웃리치팀 기도방을 만들고 팀장 형제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큐티와 기도, 생활일본어 등을 매일 나누었다. 아웃리치 준비 과정에서부터 팀원들이 하나 되었고 은혜로 충만했다. 그런데 나의 마음에는 부담감이 차올랐다. 일본어에 대한 부담이었다. 사실 나는 일본어를 전공했지만 일본어를 잘 구사할 줄 모른다. 팬스레 일본어에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대학을 입학할 당시만 해도 특별한 꿈이 없었다. 단지 취직이 잘 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어를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 한국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일본어를 말할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 이후로도 일본어를 쓸 일이 없었다. 그러다 일본어를 쓸 기회가 찾아왔다. 지난 2002년부터 온누리교회에 다녔는데 어느 집사님의 권유로 일본어예배부를 알게 되었다. 그 때부터 일본어예배부를 2008년까지 섬겼다. 외국 생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예배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에 대한 긍휼함은 없었고, 일본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일본어에 배 지체들을 대하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불편했다.

2년 전 귀국해서 다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새로웠고 낯설었다.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일본어 일대일 양육자반 과정을 수료했다. 하지만 막상 일본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하러 가자고 하면 마음과 달리 자신이 없었고, “나중에 할게요”라며 주저했다. 이번에 브릿지33+공동체 일본 아웃리치에서는 두 팀으로 나뉘서 교회 두 곳을 섬겼는데 이번에도 나는 주저했다. 일본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어를 덜 사용해도 될 것 같은 동경그레이스교회를 선택했다.

그레이스교회에 도착하자 현지 성도님들이 우리 팀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일본어, 영어, 한국어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지만 내가 말문이 트인 아이처럼 일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렇게 일본어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리던 나였는데 서툴지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런 내 모습에 내가 더 놀랐다.

노방전도를 나갔다. 거리에서 만난 일본인들은 복음에 무관심했다. 무표정한 모습, 고개를 숙이고 걸어가는 모습, 외면하는 시선들, 경직된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의 연약함마저도



예배를 통해 일본 성도들의 열정과 비전을 보게 된 브릿지33+ 아웃리치팀.

주일 아침, 간증을 부탁받았다. ‘왜 하필이면 그렇게 불편하고 꺼리던 일본인들 앞에서 간증을 하라고 하는 걸까?’ 그렇게 의문을 품고 강대상 앞으로 나아가려고 계단을 밟았다. 예배당 안도 둘러보았다. 그 순간 40여 명이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예배당이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연상케 하듯 뜨겁게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라며 중보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노방전도하며 보았던 일본인들의 모습이 스쳤다. 무관심하던 그들과 달리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경을 주소서”라며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울컥해졌다. 그들이 ‘이 땅의 부흥의 불씨’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다. 하나님은 일본에 대한 나의 제한된 마음을 만져주셨다. 주저하지 않고 입을 열게 하시고, 노방전도를 통해 일본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셨다. 예배를 통해서 일본 성도들의 열정과 비전을 보게 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피했던 장소에서 은혜를 주셨다. 이번 일본 아웃리치를 계기로 마음 한 구석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던 일본어가 나의 은사가 되었다. 이 은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쓰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내가 선택한 아웃리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그 땅 가운데 세우시고 보고 느끼게 하셨다. 나의 연약함마저도 귀히 여겨주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영등포구로공동체 일본



김성진 집사
(영등포구로공동체)

10년 전 동경 사 이타마 슈퍼아레 나에서 있었던 러브소나타가 생각났다. 당시 러브소나타 본부의 소개로 버스를 임대해서 33명의 영등포구로공동체 지체들이 타마시의 ‘타마 그리스도교회’를 방문했었다. 타마 그리스도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한 것은 처음이라며 감동하기도 하셨다.

영등포구로공동체가 러브소나타 1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대회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공동체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했다. 공동체 지체들과 모여 찬양과 말씀과 중보기도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였다. 그렇게 미니 러브소나타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갔다. 우리 팀은 14명이었다. 그래서 팀명을 ‘14천리팀’으로 정했다. 미니 러브소나타에 참가할 13명을 위해 정성껏 손 편지를 쓰고 선물도 준비하였다. 아사히가오카 교회를 위해서도 날마다 기도하였다.

7월 24일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첫 날 일정은 땅 밟기였다.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요코하마역과 차이나타운에서 땅 밟기를 했

다. 돌아오는 길에는 공원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를 주제로 예배를 드렸다. 25일에는 ‘유가와라’라는 조그만 시골도시에서 ‘일본문화의 이해와 선교방법’을 주제로 두 번째 예배를 드렸다. 26일에는 러브소나타 동경 대회에 참석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은 행사장 A홀 전 층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이었다.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은 행사를 위해 릴레이 중보기도를 했다. 행사가 마무리 되어갈 즈음 모니터 룸을 나와 화장실 청소를 했는데 일본인들의 갈끔함 덕분인지 그다지 청소할 것이 없었다. 청소를 마치고 귀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앞으로 행사를 마치고 수많은 일본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찬양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일본어로 부르며 환송했다. 그분들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이파이브와 악수를 하며 “수고 많았다”고 격려해주셨다.

7월 27일에는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며 만나고 싶었던 13명의 미신자들과 성도님들을 만나는 날이다. 초청자들이 우리보다 먼저 와 계셨다. 도착하자마자 함께 준비한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를 했다. 유명 호텔음식이 부럽지 않았다. 최고의 만찬이었다. 잡채와 즉석 해물지짐과 곁절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맛이였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정갈한 일본음식이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만찬이 끝나고 본당에서 한일 문화교류 행사

응어리를 대신 표현해줬다는 인사가...



아사히가오카 그리스도교회에서 진행된 미니 러브소나타 참석자들.

를 했다. 4개팀 33명이 참석했다. 문화교류 행사는 한국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참가자 소개를 한 다음 한국과 일본의 노래 바꾸어 부르기로 분위기를 달궜다. 서먹함을 무너뜨리고자 게임도 했다. 한글로 팀별 구호 만들어 발표하기, 풍선 터뜨리기, 피어로 분장하기 등이 이어졌다. 사회를 보고 있던 나도 웃음이 터져서 몇 번이고 진행이 중단되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하나 되는 아주 소중한 만남이었고 소중한 추억이었다. 일본인들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정성껏 준비한 현금과 액자를 선물했다.

아사히가오카 그리스도교회 목사님은 우리

14천리 팀이 단번에 사랑의 불을 지폈다면서 감사인사를 하셨다. 일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한 번도 교회에 나오라고 말할 수 없었던 목사님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글을 가르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 아마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일본사람이고 일본문화이다.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두려워 10년 이상을 교제하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할 수 없었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슴에 담긴 응어리를 우리가 대신 표현해 줬다는 인사가 참 감사했다.



2011년 일본으로 파송된 유성근 선교사가 폐암 4기로 투병 중이다.

유성근, 허귀재 선교사 위해 기도합시다

현재 폐암 4기 투병 중 중보기도 절실한 상황

일본으로 파송된 유성근 선교사가 폐암 투병 중이다. 지난해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늑막까지 전이가 된 상태다. 유성근 선교사의 치유를 간구하는 중보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유성근, 허귀재 선교사 부부는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다. 2002년 방글라데시에서 헌신적으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보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었던 선교를 구체적인

로 실행했다. 그들 부부는 2011년 일본 땅을 밟았다. 일본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생각하고 들었던 것보다 훨씬 어려웠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가 오히려 일본 선교에 큰 장벽이었다. 오랫동안 교제한 다음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때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기회만 되면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를 나눴다.

조금씩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다. 일본 선교의 첫 열매인 하루에 자매, 신학교에 입학하는 모리 형제, 타이완에서 목회를 하기로 한 교우 형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80세 할머니가 바로 그 열매들이다.

문의: 010-9032-9040

worthygi@hanmail.net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한누리 학사 관생 모집

(탈북 남자대학생 기숙사)

서울 소재 대학 재학 중인 남학생

탈북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한터에서 '한누리 학사' 관생을 모집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탈북 남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신청방법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지 알람판에 있는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우편이나 이메일(abel26@onnuri.org)로 발송하면 된다.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02-3463-9686

주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 이소정 기자

간증

더 이상 조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22살에 한국에 왔다. 여명 대안학교에서 1년 반 동안 공부하고 2014년 홍익대학교에 입학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통이었다. 남양주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한 번 가는데 2시간 이상 걸렸다. 시험기간에는 애가 탔다. 더 공부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 학교에서 남양주까지 다시 가려면 차 시간에 맞춰야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부의 흐름이 끊길 때가 많았다. 그때 한터공동체에서 여자 탈북민 기숙사생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청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편안함이 생겼다. 더 이상 차 시간 때문에

조금해하지 않아도 되었다. 공부에 더 매진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한누리 학사에서 살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이승자 사감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손수 밥을 해주시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힘들 법도 한데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이승자 사감 선생님을 보면서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한누리학사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선택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부에 집중할 수 있고, 영육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많은 탈북 학생들이 이곳에서 위로와 힘을 얻기를 바란다.

/ 하은혜(27, 아름다운교회)

온누리 리더십 비전트립 간다

종교개혁과 독일 통일의 역사적 장소 탐방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비전트립을 간다. 8월 9일부터 19일까지 이재훈 담임목사, 당회운영위원, CEO포럼 위원 등 총 35명이 체코, 독일, 프랑스 10개 도시를 탐방한다. 이번 비전트립에서는 종교개혁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던 비텐베르크, 독일보다 100년 앞섰던 종교개혁의 근원지 체코, 칼빈의 흔적이 있는 스트라스부르 등 종교개혁이 일어난 역사적 지역을 탐방한다.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독일의 통일을 만들어낸 역사적 장소도 탐방한다. 독일 통일의 근원지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 베를

린장벽 희생을 기리는 화해의 교회, 독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 등지를 다녀올 예정이다. 독일의 통일 과정을 이해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색할 예정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제5회 햇볕한민족디아스포라세계 선교대회(이하 디아스포라)에도 참석한다. 디아스포라 대회는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리더십 비전트립팀은 15일 개회식과 17일 저녁예배에 참석한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8월 17일 저녁예배에서 메시지를 전한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미션 연합 세례식

온누리미션이 오늘(6일) 오후 2시 안산M센터에서 연합세례식을 진행한다. 오전 10시에는 이주민연합예배를 드리고, 오후 2시에 세례를 준다. 베트남, 미얀마, 중국, 태국, 캄보디아, 네팔, 수단, 모로코에서 온 성도 25명이 세례를 받는다.

한편 안산M센터에서는 이주민공동체 여름 아웃리치 후원자를 찾고 있다. 이주민공동체 아웃리치에서는 각 예배공동체에 소속된 지체들의 고국을 찾아가 가족, 이웃, 직장 동료들 전도한다.

문의: 031-491-6950

부천 중국어예배 창립

부천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가 8월 27일 창립한다. 오늘(6일)부터 3주 동안 주일 오후 2시 자동차백화점 502호에서 준비예배를 드리고, 8월 27일 정식 오픈한다.

부천 온누리교회 중국어예배는 교회 인근에 있는 가톨릭대, 유한대, 부천대, 서울신대, 경인교대, 인천대, 인하대 등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들과 부천, 부평, 김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인 근로자와 조선족 근로자들을 섬길 예정이다.

25기 전도폭발학교 훈련생 모집

25기 전도폭발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8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매주 월요일 주간반(오전 10시), 저녁반(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전도폭발훈련에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면서, 전도자의 영혼

도 회복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7만 원.

문의:

주간반 강희주 010-2850-1021

저녁반 신동철 010-6685-0812

53기 내적치유학교 참가자 모집

53기 내적치유학교가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파주 솔수양관에서 2박 3일 동안 개강한다.

내적치유학교에서는 다양한 강의와 소그룹, 십자가의식 등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다.

정민음 성도는 “내적치유학교는 영적인 응급실이었다”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고백했다.

문의: 010-5543-8002

온비아 세미나 참가자 모집

365일 성경 말씀에 꼭 빠져 살고 싶은 성도들이 참석하면 좋은 세미나가 열린다. 온비아(Onnuri BEE Academy) 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온비아 세미나는 갈라디아서, 로마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과목을 1년 동안 수강하는 과정이다.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한다. 서빙

고는 월요일 오전과 저녁, 목요일 저녁, 토요일 오전, 양재는 월요일 오전과 저녁, 화요일 저녁, 부천은 토요일 오전, 수원주일은 주일 오후에 진행된다. 일대일 동반자 과정을 수료한 성도만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7만원이다.

문의: 010-3798-7948

8월 서빙고 온누리교회 장소 제한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과 본당 공사와 하반기 개강예배로 인해 장소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8월 7일(월)부터 9일(수)까지 비전홀을 사용할 수 없고, 8월 21일(월)부터 25일(금)까지는 본당을 이용할 수 없다. 8월 25일(금)부터 9월 8일(금)까지는 공동체 하반기 개강예배 관계로 시설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된다. 문의: 02-3215-3105

전도폭발 1단계 훈련 수료 간증



/ 김소현 성도(강서공동체)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전도는 다 하지 못한 숙제처럼 늘 마음의 부담이었다. 머지않아 선교지에 나가려고 준비하면서도 막상 전도를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영적으로 무장되지 못한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에 전도폭발 훈련을 알게 됐다.

남편과 돌 된 아기와 함께 받는 훈련은 생각보다 고됐다. 아기를 돌보느라 훈련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암기 전문을 외우는 것도, 매주 시간을 내서 전도하러 가는 것도 버겁기만 했다. 그래도 전도폭발 훈련 첫날 목사님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포기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한 주 한 주 달려왔다.

훈련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같은 조 집사님의 아는 목사님이 경기도 안양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같이 전도하러 가자고 하셨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이 교차했다. 그렇게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나섰다. 깜짝 놀란 것은 말만 건네도 눈물을 흘리시던 어르신들이었다. 다가가기만 해도 어서 오라고 손짓하시고, 간식을 드리면 너무 고마워하시며, 기도해드린다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리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내게는

충격적이었다. “손 내밀어주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동안 외면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다. 서울역에서 팀원들과 노방전도를 했을 때도 많이 놀랐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무조건 거부하며 밀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이토록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특히 복음에 대해 듣고도 영접기도를 거부했던 한 대학생은 몇 날 며칠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안타까웠다.

전도폭발훈련을 시작하면서 제출했던 기도제목이 ‘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이었다. 훈련을 받다 보니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전도현장에 나가야 비로소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중언부언했던 기도가 전도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 변화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훈련과 전도를 거듭할수록 자라날 거라고 믿는다.

25기 전도폭발
8월 28일~12월 11일
문의: 02-3215-3214

세례 간증



/ 오준호 형제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

난 무교인 부모님과 불교를 믿으시던 할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듯이 어릴 적에 친구와 교회를 한두 번 가보았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다.

그리고 작년, 20년 만에 교회에 다시 오게 되었다. 내년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만나면서부터다. 나는 찬양을 서는 여자친구가 같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고 먼저 권유하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렸다.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와 같은 종교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태어나서 30년간 교회를 한두 번 밖에 가보지 않았던 내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일단 꾸준히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예배를 들으며 궁금한 것도 많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다.

그러던 차에 여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새신자교육과 일대일양육을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여쭙보셨다. 누구보다 신실하신 어머니께서는 평소 나에게 좋은 말씀과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셨다. 이처럼 어머니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고 의지할 수 있었기에, 나는 이

번에도 감사드리며 어머니 말씀에 따라 흔쾌히 교육을 신청했다. 거기에서 어머니께서는 본받을 점이 많고 신실하신 집사님을 양육자로 이어주시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어머니와 집사님 덕분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덕에 어느 순간부터는 성경 말씀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처럼 주변의 많은 도움 덕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내게 성령을 심어주시며 교회에 나오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변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베풀어 주셨다.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나뉘질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을 주관해 오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앞으로는 주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것이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으며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은혜와 복이 함께할 것을 믿는다. 아멘.

선교지에서 온 편지



/ H·S선교사(중동A국)

기도를 부탁한다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그동안 예배드리던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당장 모일 장소와 예산에 대한 고민은 차치하더라도 깊은 아쉬움이 남을 것 같다. 교회 건물은 새 주인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에 허물 예정이다. 공식적인 교회로 인정받고 있었기에 새로운 모임 장소를 임대해주는 구청의 배려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나와 성도들이 늘 깨어있고 임시 처방이 아닌 신실한 교회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지체들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교회 모임 막바지에 벨이 울리고 찾아온 한 젊은 부부는 늘 교회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킨다. 그 부부는 특이하게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나타난다. T장로님은 그 커플을 이슬람 과격단체나 종교청에서 보낸 끈나풀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여자 분은 갓 스무 살을 넘겼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아직 신앙이 어리고 내면세계가 엉망이다. 그녀의 남편은 “예수만 믿으면 그날로 남남”이라고 하더니 부활절 예배에도 참석하고 벌써 4번

이나 교회 문을 넘었다. 어제 예배시간에 본 그의 웃는 모습은 참 보기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지키시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도 진행하고 있다. 신학과정 코스인 성경해석학 강의를 I와 II에서 했다. 7년 동안 거주했던 G에 가서 그리운 이웃과 지체들을 만났고, 개척사역에 합류했던 S교회에도 방문했다. S교회 지체들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5일 동안 하루 6시간씩 이사야서와 에베소서 공부를 인도했다.

분기별로 방문해서 모임을 인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삶을 나누기 위해 형제들의 집에서 돌아가며 지내고, 함께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새로운 교회 건물과 신실한 교회의 존귀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새로운 젊은 커플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도록, 티칭사역을 잘 감당하고, IS밀집지역을 방문할 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허브공동체 아웃리치 간증



/ 박준영 형제(허브공동체)

감사, 즐거움, 사랑, 평화

아웃리치 준비기간이 짧아서 사역을 잘하고 돌아올 수 있을지 걱정했다. 그래도 작년 아웃리치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기억났고, 그때 주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싶었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원도 원주 부론광야교회 아웃리치를 갔다.

원주 부론광야교회는 내가 살던 곳과 비교했을 때 살기 편한 곳이 절대 아니었다. 잠자리가 편한 것도, 씻는 것이 편한 것도 아니었다. 마음껏 먹으며 지낼 수 있는 곳도 아니었다. 그런 불편한 생활을 항상 하고 계신 주민들이 계셨다. 그분들을 보면서 그동안 누린 풍요를 당연시 여겨왔던 내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밥일이었다. 육체적인 노동도 힘들었지만 더운 날씨가 우리들을 더욱 힘들게 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 더운 날씨에 모두 힘들어했지만 그날의 바람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잡초를 뽑을 때는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마음 속 가시와 잡초를 캐낸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다.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잡초와 돌을 제거해야 하듯이 내 믿음의 성장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바로 서고, 깨어 기도해야 하며, 내가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 팀원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깨어 있고, 주님의 이름 아래 모였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웃리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큰 힘을 주었다. 또한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 아픔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그 슬픔에 동참하며 서로를 섬겼다. 팀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계획은 우리가 했지만 주님께서 모든 계획을 이룰 수 있게 하셨다.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린다. 다친 사람 하나 없이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고,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감사와 즐거움과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장로칼럼

그래도 목사님이 사무치게 그림다



홍범식 장로
(두란노해외선교회 담당)

1984년 신촌 두란노서원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창세기 성경공부를 가르치실 때가 기억난다. 하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1985년 10월 온누리교회 창립예배에서 느꼈던 감동스럽던 마음들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하용조 목사님 소천 6주기를 맞으며 예전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었그제 같았던 추억들인데도 생생하게 생각이 난다.

하 목사님은 교회 개척기에 ‘바로 그 교회’를 비전으로 선포하시고 인도하셨다. 곧바로 성도들에게 ‘제자훈련’을 시작하셨다.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양육이 이어졌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성경공부를 했고, 흠어지면 전도와 선교를 했다. 교회 초창기에 함께 라면을 끓여 먹고, 주일이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서해 섬 지역에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를 했다.

교회 성숙기에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 도전하고 실천했다. 1990년대 초에는 성령집회의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때 하 목사님이 “기적 중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은 것이요, 내가 잘 나서 믿는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은혜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찾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도 울림으로 남아있다.

부흥기에는 아름다운 사역들이 꽃을 피웠다. 제자 된 성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로 결단했다.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를 파송하겠다는 2

천/1만 비전도 선포했다. 그 비전을 선포하시면서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던 하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하 목사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신앙유산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직 예수, 영혼 구원’이다. 권위는 있으나 권위적이지 않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대해주시던 목사님의 모습이 생생하다. 목사님은 편찮으실 때도 전도와 선교에 힘쓰셨다. 암 수술 후에 교도소로 전도하러 가겠다는 목사님을 주위에서 걱정하면서 말릴 정도였다. 그때 목사님은 “설교하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장기 복역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선포하셨다. 하 목사님의 그 행복한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목사님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도 내게 큰 귀감이 되었다.

온누리교회를 통해 무슨 사역을 할까 기도하다가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전임사역자로 섬기게 되었다. 2010년 아이티 지진피해 구호사업 파송식을 할 때였다. 하 목사님이 내 손을 꼭 잡으시며 “홍 장로 정말 좋겠다. 나도 선교지에 가야 하는데”라고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하다.

온누리선교 25주년 축제에서는 하 목사님의 눈물이 모든 선교사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셨다. 그해 선교사들은 목사님 소천 소식으로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제는 이재훈 목사님과 제자 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하 목사님께서 남기신 유업의 대를 잇고 후세에 넘기게 될 것이다.

모든 일에 그저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하 목사님 발자취를 따라가니 행복하다. 그래도 목사님이 사무치게 그림다.

권사칼럼

사랑하고 그리운 하용조 목사님께



류석인 권사
(서빙고공동체)

목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긴 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러브소나타 10주년을 기념하는 러브소나타 동경 대회가 잘 끝났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론편코팀 봉사자들이 만든 화관이 일본인들의 머리에 예쁘게 쓰이는 걸 보면서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에서 러브소나타를 하는 것을 찬성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 때문이었지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직 광복을 맞이하기 전이었어요. 논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내기를 돕고 있는데 친구 발에 커다란 거머리가 붙었어요. 친구도 나도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일본인 선생님한테 달려갔어요. 거머리가 붙었으니 떼어달라고 우는 친구한테 그 선생님은 거머리는 떼어주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친구를 눈두렁으로 밀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일본 사람이 미웠습니다.

2007년 오키나와 러브소나타 때 일본인 머리 위에 놓인 화관을 보니 마음이 불편하던군요. 일본인이 싫은 마음이 있었지만 저 중요한 화관을 시중에서 파는 의미 없는 걸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죠.

“왜 하필이면 일본입니까? 일본은 원수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큰하고 불편한 손목임에도 불구하고 러브소나타 매 대회마다 일본인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화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일본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목사님께서 비록 6년 전에 이 땅을 떠나셨지만 온누리교회는 그 뜻과 비전을 이어 말씀을 실행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허영오 장로)이 소천하기 전날 목사님이 오셔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셨던 것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남편의 7주기와 하 목사님 6주기를 맞이하고 있네요. 하 목사님과 함께 했던 감격과 슬픔 모두 천국에서 만나는 그 날까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사진을 보면 목사님이 참 그림고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과 관련된 장소를 지날 때면 더욱 생각나곤 합니다. 목사님은 온 누리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시며 온누리교회라고 이름을 지으셨죠. 이름 그대로 오로지 성령님 말씀 외에는 절대 허락하지 않고 나아가는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천국에서 바라봐주세요. 이재훈 담임목사님을 비롯한 온누리교회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천국에서 지켜보며 중보기도해 주세요.

남편도, 의지하던 목사님도 이 세상에 없지만 저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 목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온 누리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신앙에세이



이강현 전도사
(양지 온누리교회)

박찬욱 감독의 영화 전반에 흐르는 주제는 복수다. 복수 3부작이라 불리는 ‘복수는 나의 것’,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영화에도 복수가 기저에 깔려있다. 그의 영화는 잔혹성과 선정성에도 불구하고 평단과 관객들에게 대체로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드보이’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57회(2004년)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그랑프리)을 받았다.

복수는 프로이트(S. Freud) 심리학의 주요 개념인 ‘근원적 본능’(이드)에서 기인한다. ‘이드’를 자극하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관람하는 관객들은 대상행동(substitute behavior)을 통해 희열을 느끼고 공감한다. 보복운전이나 증간소음으로 인한 다툼 등 보복사회의 단면이 뉴스의 사회면을 자주 장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음껏 보복하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영화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 ‘눈에는 눈’을 뛰어넘어 ‘눈에는 두 눈, 세 눈’이라는 ‘복수(復讐)공식’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러한 영화가 관객의 호응을 얻는다.

하지만 그의 영화가 다소 불편한 이유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마 5:44),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마 5:11~12),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롬 12:14), 하나님은 복수 대신 기도, 기쁨, 축복을 선택하라고 가르쳐주셨다.

일본 요코하마 선교의 중심인물 헵번(J. C. Hepburn, 1815~1911)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183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1840년 클라라와 결혼하고 중국 마카오로 의료선교를 떠난다. 하지만 그곳에서 첫 아이를 유산하고 둘째 아이도 동양에서 온 질병

으로 잃고 만다. 그런데도 그는 동양에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했다.

헵번 선교사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애타간 동양을 등지지 않고 오히려 일본 선교를 선택했다. 유일하게 성장한 셋째 아이가 14살이 되던 1859년 10월 18일 그와 그의 아내는 일본에 도착했다. 그의 선교보고서 편지(1881년 3월 16일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일본에 가야만 한다는 소명을 받았을 때 저의 가슴을 고향에 얹매이게 했던 무수한 속박들을 끊고 기쁨에 가득 차 선교지인 이곳 일본에 왔습니다.”

그는 1892년 10월 귀국할 때까지 33년 동안 요코하마에서 의료선교사, 교육가, 사전 편집자, 성경 번역가, 문필가로 왕성하게 선교 활동을 했다. 그는 복수할 법한 동양을 사랑으로 품고 일본에서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면서 기쁨을 전했다.

‘러브소나타’에도 이러한 기독교의 위대한 가치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10주년을 맞이한 러브소나타는 하용조 목사님이 한국 교회 부흥 100주년을 맞이한 2007년 시작하였다. 2007년

7월 24일 네 번째 러브소나타 집회가 있었던 도쿄 사이타마에서 한 설교 ‘사랑의 파도’에 하용조 목사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힘 가운데 가장 큰 힘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미움과 분노의 힘이고, 둘째는 사랑과 용서의 힘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파괴와 폭력과 살인을 일으키지만, 사랑과 용서는 화해와 건설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러브소나타는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갈등과 고통의 벽을 넘어서라.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라. 그리고 사랑의 파도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을 향해 갈았던 복수의 칼날을 버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라고 선포한 하용조 목사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은 미운 사람에게도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 그대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인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축복의 손을 내밀어 그의 거친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이것은 일반 달란트를 탕감 받은 우리가 백 데나리온 빛님에게 당연히 실천해야 할 주님의 뜻이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 같은 자가 누구겠습니까?”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취에 빠진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을 받았다는 겸손한 감격의 고백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와 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같은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찬양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나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정에서 행복합니까. 배우자를 향하여 “당신 같은 사람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행복 표현 아닙니까.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나 같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면 정말 행복한 관계 아닐까요.

저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늘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 같은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나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고 고백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행복이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첫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 역사 속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그분은 너를 도우려 하늘을 타고, 그분의 위엄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26절).

‘하늘을 탄다’는 말은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속어적 표현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려 세상 속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둘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27절 초반부에 “영원한 하나님이 네 피난처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피난처에 숨기시는 것입니다. 셋째, 그분이 네 원수를 네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영원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영원한 팔이 네 아래 있구나. 그분이 네 원수를 네 앞에서 쫓아내며 ‘그를 멸망시켜라!’ 하실 것이다”(27절).

“...그분은 네 방패이며 도우시는 분이요 네 영광스러운 칼이시라. 네 원수들이 네 앞에서 움츠리고 너는 그들의 높은 곳을 발로 밟을 것이다”(29절).

넷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이슬이 떨어지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있는 땅에서 야곱의 샘이 안전하구나”(28절).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영원과 시간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시간이 계속 되는 것이 영원이 아닙니다. 영원은 시간과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영원은 언제나 현재일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역사와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세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하신 분이 역사 속으로 들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피난처에 감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피난처에 감추십니까. 우리에게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나면 싸울 능력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피난처에 숨깁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나서서 원수들과 싸워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나눠주십니다. 그 승리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피난처에 숨는 것 밖에 한 일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나눠주십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결박당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 아래 결박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세상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예수님을 “반역이 일어난 지역에서 반역자들을 물리치고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오신 사령관과 같은 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들을 피난처에 숨기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내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 나의 승리로 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이 내용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을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같은 이가 누구이겠습니까.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러브소나타를 10년 섬긴 소회(所懷)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노래 ‘러브소나타’가 2007년 오키나와에서 시작해 지난 7월 25~26일 동경에서 10주년 대회를 가졌다. 이번 10주년 기념 동경 대회를 위해 198개 일본 협력교회가 참여했고, 일본인 4,503명이 참석했으며,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교회와 성경 메시지에 긍정적 답변을 한 사람들이 593명이었다. 일본 수도 한복판에 있는 동경국제포럼에서 울린 찬양과 설교 말씀이 준 감동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난 10년간의 러브소나타를 되돌아보면서 그간의 성과를 간략히 요약해 본다. 러브소나타는 일본 23개 도시를 중심으로 26번 열렸고, 일본 협력교회 3천개, 일본인 결신자 4천여 명, 실행위원으로 참가한 일본 목회자가 600여 명에 이른다. 본 행사 말고도 교회세미나, 가스펠 나이트, 리더십포럼이 계속되어 왔다. 후속 프로그램으로 일대일 세미나, 큐티세미나 등이 일본 교회에 전수되고 있다. 교회세미나와 후속 프로그램 강사로 활약 중인 김하중 장로님이 일본 지역 교회를 방문할 때 목사님들이 기도받기를 위해 기도해주며 정말 고마워하고

성령을 체험하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복음전도에 지친 일본 교회 목회자들의 목마름이 느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대회 전날 있었던 전국실행위원회 조찬모임에서 일본 목사님들이 한 간증도 기억난다.

“혼란 속에서 시작한 러브소나타가 10년간 지속되고 일본 교단의 단합을 이루게 한 것은 기적이다. 행사 몇 달 전까지 실행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채 준비가 시작되었는데 훌륭한 행사로 이어진 것이 놀랍다. 앞으로는 차세대와 가족 전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간 일본에 있었던 지진과 쓰나미 등 재난에 온누리교회가 동참했던 것이 선교로 이어지고 있다” 등이다. 이런 열매를 얻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천황제가 확립되면서 천황제에 위배되는 기독교가 저급종교로 취급받고, 사회적으로 교묘하게 배척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온 소수의 일본인들, 그리고 새로이 믿음을 갖고 싶어 하는 일본인들이 놀랍다. 이들은 일본 사회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일본 땅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이제 러브소나타의 미래를 생각하며 몇 가지 제언해본다.

첫째, 2018년부터는 일본 교회가 서서히 러브소나타를 주관하는 비율을 늘려가길 바란다. 그래서 20주년이 되는 2027년에는 일본 교회가 완전히 주관하는 러브소나타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번 동경 러브소나타에서 있었던 가스펠나이트가 유명한 청년가수들이 참여해 매우 감동적인 문화선교행사로 치러지는 것을 보았다. 이 가스펠나이트가 더욱 확대되어 청년집회로 자리 잡고, 이것이 차세대와 가족 전도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 리더십포럼에서 있었던 일본의 유명 음악인들의 공연과 간증도 러브소나타의 훌륭한 자원이 될 것 같다.

둘째, 러브소나타가 한국과 일본 간의 민간 외교로 발전해 가기를 기도한다. 그동안 리더십포럼이 각 지역에서 개최되어 왔다. 양국 관

계가 어느 때보다 긴장 관계에 있는 이때 양국의 리더들이 용서와 화합의 메시지를 가지고 새로운 양국 간 민간외교의 채널로 발전시켜 가기를 소망한다. 기독교가 하위종교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에서 한국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일본인들이 느낄 때 기독교가 일본 상층으로 확대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셋째, 러브소나타가 한국에서 일본 성도들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지기를 꿈꾼다. 일본인 성도들과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온누리교회 성도는 물론 타교회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는 ‘러브소나타 서울’을 개최하는 날이 오기를 꿈꿔본다. 2028년에는 일본 47개현에서 러브소나타가 개최되어 일본 교회에 의한 선교 비전이 완성되기를 기도한다.



윤영섭 장로
(러브소나타 담당장로)

Acts 29

게시판

14 온누리신문

2017년 8월 6일(주일) | 제1159호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영성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배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워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분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인전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분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 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 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우주 형제(010-8591-8236)

수요오전여성예배 매 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 주 수 오후 7:4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오전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초1~3학년), 11:30(초1~2학년) 사

랑홀 / 초등부 9:00(초4~6학년), 11:30(초3~4학

년) 경찬홀 / 소년부 11:30(초5~6학년) 믿음홀 /

중등부 9:00 비전홀 / 고등부 9:00 믿음홀

영어예배 (어린이&중고등영어) 11:30 비전홀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셔틀운행(010-9117-9325)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 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일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주일7부예배 라이어모집

시간: 매 주 주일 오후 7:30~10:30

장소: 분당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목요선교집회 심어모집

시간: 매 주 목요일 오후 5:30~9:15

장소: 비전홀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금요회복예배 심어모집

시간: 매 주 금요일 오후 6:00~8:30

장소: 분당

문의: 이승윤 목사(010-2701-5309)

안산 온누리지역아동센터(스타트리

아카데미) 생활복지사 채용공고

자격: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보육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서류: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자격

증서본

접수: 8월 25일까지 이메일 접수

(onnurim911@gmail.com)

문의: 이경숙 전도사(010-5034-0092)

2017 여름 회복세미나

일시: 8/23~25(금) 10시~16시 30분

신청: 선착순 200명, 교회 홈페이지 참고

문의: 회복사역본부(02-3215-3532)

CMN라파뎀 추석 아웃리치 모집

기간: 10월 1일~9일

지역: 마다가스카르 호산나학교

모집: 의사, 치과 의사, 약사, 간호사, 어린이

사역 지원자

문의: 심형섭(010-3227-9915)

온누리교회 커피 시음 평가위원 모집

모집: 장로 4명(서빙고 2명, 양재 2명), 권사

4명(서빙고 2명, 양재 2명)

소요시간: 2시간 내외

평가: 서빙고 8월 24일, 양재 8월 25일

마감: 8월 11일 18:00까지

문의: 온누리선교재단(02-3215-3176)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 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 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vez (제라르 티네베)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 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CGNTV

어린이
종합 프로그램

나는야! 주의 어린이

어린이들의 신앙성장을 돕는
<나는야! 주의 어린이>가
새로운 코너들을 선보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도록
<나는야! 주의 어린이>와 함께하세요.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20분
토요일 낮 12시

MC 신동식 목사, 레아 그룹 리브하이 멤버



신규 / 특집 코너

Who? Who?
바이블 피플

Who? Who?
바이블 피플

성경인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휘타와 찬트GO

휘타와 찬트GO

어린이 사역자 휘타와
성경 구절을 랩으로
암송하자!



주어 tv

주의 어린이TV

기도제목, 성령 충만한
순간 등 주의 어린이들의
다양한 이야기



우주소

글로벌 우주소

선교지의 주일학교를
소개하는 특집 시리즈
(인도네시아, 일본, 아랍,
대만, 태국 편 예정)

